



추모예불 광주전남불교협의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나흘째인 26일 광주시 동구 윤리동 문빈정사에서 추모 법회를 열었다. 법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추모예불을 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盧風광주’ 노란색 물결

故 노前대통령 추모 열기 갈수록 고조

추모위 “광주에서 노제 치러달라” 요청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나흘째인 26일 광주·전남지역의 추모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광주시 동구청 등 7곳에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추가로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민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주변엔 탈(脫) 권위와 지역주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담긴 노란색 만장피가 물결을 이뤘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 마련

된 공공기관 및 민간운영 분향소는 광주 9곳, 전남 20곳으로 파악됐으며, 이날까지 조문객은 4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광주시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은 김경숙(여·47·동구 계림동)씨는 “당신이 대통령인 국가의 국민으로 살았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영면에 들길 바란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노란색 만장피 ‘물결’=옛 전남도청 분향소 주변 거리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절절한 심정이 담긴 만장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조문객들이 추모의 메시지를 적어넣은 가로 7cm, 세로 50cm의 만장피 수백개는 모두 ‘노풍(盧風)’을 상징했던 청 앞 광장 등 7곳이다.

“노무현 당신은 대한민국의 자존

심입니다”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별을 잃었습니다” “온 국민이 당신의 뜻을 잊지 않을 겁니다” “노 전 대통령의 뜻대로 이제 영·호남의 벽을 허물고 국민 통합을 이루자” 등의 내용과 “너무 무책임해서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는 자성의 메시지도 눈에 띄었다.

‘광주 노제’ 요청=종교와 노동, 학생, 여성 등 광주·전남 시민사회 300개 단체로 구성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광주·전남 추모위원회’는 이날 “노풍의 발원지이자 정치적 고향인 광주에서 노제(路祭)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노 전 대통령 장의위원회와 유가족에 요청했다.

추모위원회는 이날 옛 전남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9일 서울에서 영결식을 마치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가는 길에 광주를 방문, 시민들이 노제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문재인 전 비서실장 등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allee@kwangju.co.kr

밤새운 촛불

옛 도청 분향소 참배객들 추모 문화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틀날인 지난 24일 밤부터 시작된 촛불 추모제가 연일 이어지면서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25일 밤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광주시민합동분향소 앞에서는 전날에 이어 두 번째 촛불 추모제가 열렸다.

옛 도청 별관 앞에서 열린 촛불 추모제는 2천여명의 추모객들이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옛 도청 정문에서부터 100m 가량의 긴 행렬을 이뤘던 추모객들은 광주 노사모 회원들이 나눠 주는 촛불을 들고 20여분 동안 참배운서를 기다렸다.

추모제 일부는 옛 도청 입구에 마련된 임시 촛불분향소 앞바다에 촛불을 내려놓아 ‘노장님, 사랑합니다’란 촛불 글씨를 만들기도 했다.

촛불추모제에는 참배를 마치고 나온 추모객과 가방을 메고 나온 고교생, 화사를 마치고 분향소를 찾은 직장인까지 동참했다.

한편 노사모 여수시지부는 26일 밤 여수시 여서동 차 없는 거리에서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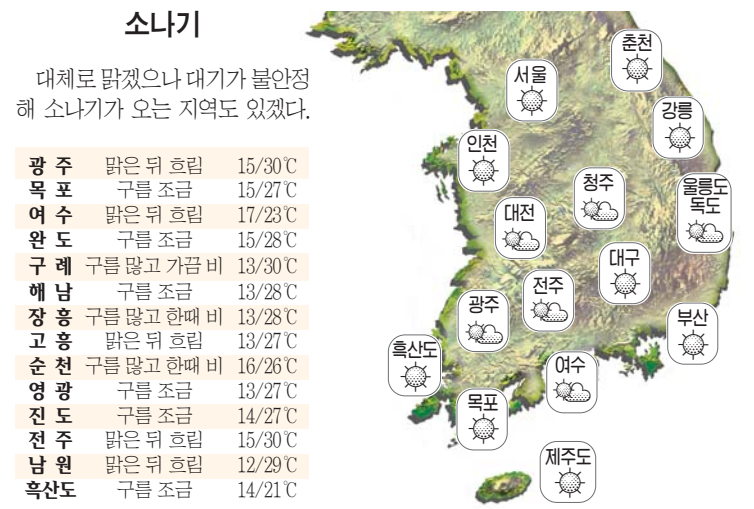
추모제 일부는 옛 도청 입구에 마련된 임시 촛불분향소 앞바다에 촛불을 내려놓아 ‘노장님, 사랑합니다’란 촛불 글씨를 만들기도 했다.

촛불추모제에는 참배를 마치고 나온 추모객과 가방을 메고 나온 고교생, 화사를 마치고 분향소를 찾은 직장인까지 동참했다.

한편 노사모 여수시지부는 26일 밤 여수시 여서동 차 없는 거리에서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1분 해질 19시 38분 달돋이 07시 41분 달질 22시 44분



도시	기온	풍향	풍속	파고	밀물	썰물
광주	맑은 뒤 흐림	북~북동	0.5~1.0m	목포	04:14	09:24
목포	구름 조금	북~북동	0.5~1.5m	여수	16:11	21:22
여수	맑은 뒤 흐림	북~북동	0.5~1.5m		10:52	04:56
원도	구름 조금	북~북동	1.0~1.5m		23:39	16:57

날짜	28(목)	29(금)	30(토)	31(일)	6/1(월)	2(화)
날씨						
최저/최고	16/31	16/31	16/29	15/29	15/29	16/30

스타벅스 등 얼음·음료에 식중독균

유명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등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전국 153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과 팥빙수 등 300건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 18개 매장에서 식중독균 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스타벅스 매장 1곳의 얼음에서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함께 1㎖당 1천200개(기준 100개/㎖)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롯데리아 매장의 얼음에서도 허술한 위생상태를 나타내는 대장균군이 자라고 있었으며 1㎖당 무려 3천400개의 세균이 검출됐다. 이밖에 세계적 체인 맥도널드와 버거킹, 던킨

도너츠, 커피빈을 비롯해 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로즈버드, 스위트브리즈 매장 각 1~3곳도 세균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행뉴스

동거녀 살인미수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4년

동거녀의 고소로 육고를 치른 데 앙심을 품고 동거녀를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준상)는 25일 동거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박모(40)씨에 대해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형호기자 choice@



“정상화추진위 명칭 사용 말라”

조선대, 옛 경영진에 법적 대응

조선대학교가 옛 경영진 인사들이 최근 발족한 단체의 명칭이 현재 대학측이 사용하고 있는 기구의 명칭과 동일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선대는 26일 “옛 경영진 인사와 일부 교수들이 지난 24일 발족한 ‘학 교법인 조선대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에 대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

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정추위이라는 명칭은 이미 2006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 교측이 구성한 조직이자 명칭인데도 불구하고 옛 경영진 측 인사들이 도 용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조선대는 옛 경영진이 발족한 정추위 공동대표로 선임된 6명 가운데 4명이 현직 교수인 점을 감안,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he One' featuring three men in suits. Text includes '세계 최고 MBA출신 경영전문가 재혼정보회사 선택한 까닭은?' and '인연의 빨간실 잇는 행복출발 더원 경영진'.

Advertisement for Volkswagen Service featuring a Volkswagen logo and text: '독스바겐 공식딜러 (주)지모하우스 광주서비스센터'.